

‘선발진 초토화’ 위기의 KIA, 우승 해답 찾을까

27일~29일 SSG·주말 삼성전

미편성·순연 등 재편성 일정 돌입
이의리·윤영철 이어 네일도 부상
대체 선발진·중심 타선 활약 절실

잇따른 부상자 발생으로 KIA타이거즈가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이며 우승 도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위기 속에서 가을야구권 경쟁 팀인 SSG랜더스와 우승권 경쟁 팀인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거센 저항을 마주할 전망이다.

KIA는 지난 주중 롯데지아언츠에 2승(1경기 우천 노게임)으로 위닝 시리즈를 챙겼으나 주말에는 NC다이노스를 상대로 1승 2패에 그치며 루징 시리즈를 안았다. 3승 2패로 승패 마진은 +1을 기록했지만 2위 삼성과 격차는 5.5경기로 유지됐다.

이번 주에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먼저 안방에서 SSG를 만난다. SSG는 지난 주 2승 4패로 연속 루징 시리즈를 당하며 5위에서 6위로 밀려나 다소 침체된 분위기다. 이어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원정을 떠나 삼성과 맞대결을 치른다. 2위에 오른 삼성은 지난주 3승 2패로 KIA와 격차를 유지했고, 이번 맞대결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순위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지만 KIA는 잇따른 부상자 발생으로 치명타를 입었다. 필승조에서는 최지민이 우측 내복사근 미세 손상으로 정규 시즌

잇따른 부상자 발생으로 KIA타이거즈가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이며 우승 도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KIA타이거즈가 27~29일 SSG랜더스와 홈 주중 3연전, 31일과 내달 1일 삼성라이온즈와 원정 2연전을 치른다. KIA타이거즈 선수단이 지난 2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지아언츠와 맞대결에서 승리한 뒤 기쁨을 나누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막바지이나 돌아올 것으로 전망되고, 장현식은 우측 내복사근 염좌로 열흘 휴식을 부여받았다.

특히 선발진에서 제임스 네일이 지난 24일 창원 NC전 도중 갑습 타구에 얼굴을 맞고 턱관절 골절로 고정 수술을 받아 정규 시즌을 마감했다. 이미 이의리가 좌측 팔꿈치 내측 측부인대 재건술 및 뼈조각 제거술, 윤영철이 척추 피로골절로 이탈해 황동하와 김도현이 합류했음에도 또 새로운 선발 자원을 찾아야 한다.

가장 확실한 카드인 대체 외국인 선수는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정규 시즌 마무리까지 한 달 남짓, 23경기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영입을 진행한다

고 해도 활용할 수 있는 경기는 3~5경기 정도다.

현실적인 대안은 대체 선발인데 김건국과 김사운 등이 후보로 쥔다. 올 시즌 세 차례 대체 선발로 기용됐던 김건국은 4이닝 이상을 소화해 주지는 못했으나 7월과 8월 퓨처스리그에서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하며 재정비를 마쳤다.

김사운은 올 시즌 두 차례 대체 선발로 나섰으나 모두 2회를 넘기지 못했다. 롱릴리프로는 강점을 보였으나 지난 18일 잠실 LG전을 앞두고 1군 엔트리에서 말소돼 열흘을 채워야 등록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1군 엔트리에도 김기훈과 임기영

등 선발 경험을 가진 자원들이 있으나 보직 변경이 쉽지는 않다. 김기훈은 지난 10일 광주 삼성전 대체 선발 등판에 예정됐으나 우천 취소됐고, 올 시즌 9경기 구원 등판에서 9이닝을 소화하며 평균 자책점 3.00을 기록했다.

임기영은 올 시즌 세 차례 대체 선발로 나서 1승 2패를 기록했다. 7월과 8월에는 불펜으로만 나서며 롱릴리프로 완벽히 자리를 잡았고, 김기훈 또는 임기영이 대체 선발로 발탁된다면 또 새로운 롱릴리프를 찾아야 하는 과제가 생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SSG와 삼성을 연달아 만나는 것은 부담이 크다. 불행 중 다행으로는 미편성

2024 KBO리그 순위 (26일 현재)									
순위	구단	게임	승	패	무	승률	승차		
1	KIA	121	71	48	2	0.597	-		
2	삼성	122	66	54	2	0.550	5.5		
3	LG	120	63	55	2	0.534	7.5		
4	두산	124	62	60	2	0.508	10.5		
5	KT	122	59	61	2	0.492	12.5		
6	SSG	121	58	62	1	0.483	13.5		
7	한화	118	56	60	2	0.483	13.5		
8	롯데	115	51	61	3	0.455	16.5		
9	NC	117	52	63	2	0.452	17		
10	키움	120	53	67	0	0.442	18.5		

과 우천 순연 등 재편성 일정이 시작되면서 네일의 차례인 금요일이 휴식일이 돼 선발 로테이션대로 양현종과 김도현, 에릭 라우어가 SSG, 황동하와 양현종이 삼성을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타선의 도움도 절실했다. 지난주 나성범이 0.400(15타수 6안타 3타점 1득점), 김도영이 0.375(16타수 6안타 2타점 5득점), 김선빈이 0.368(19타수 7안타 4타점 2득점)의 타율을 기록했는데 소크라테스와 이우성, 변우혁 등 장타 능력을 갖춘 타자들이 함께 터져줘야 한다.

최형우의 복귀는 반가운 소식이다.

최형우는 사구에 맞은 옆구리가 우측 내복사근 미세 손상으로 이어지며 지난 7일 광주 KT전을 앞두고 재활군으로 향했는데 최근 퓨처스리그 출전을 통해 복귀 준비를 마쳤다. 세 경기에서 홈런 한 방을 포함 8타수 4안타 2타점 2득점으로 꽤조의 컨디션을 자랑했고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축구협, 배드민턴협 문제 모두 다음 달 內 결론”

유인촌,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서
“이번에 체육 정책 전반적 개혁”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조사 등 최근 체육계에서 불거진 문제에 대한 결론을 다음 달 내에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축구와 배드민턴을 비롯한 체육계가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유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대한축구협회 감사 상황에 대해 “9월 안에 감사가 종료될 것”이라며 “홍명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축구협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모두 짚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대한 절차적 하자 또는 법률 위반이 발견되면 감독 선임 자체가 무효”는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질문에는 “감독 선임은 조금 더 정무적인 문제”라며 “다음 달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을 앞두고 있기도 해서 대한축구협회와 관계자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기초 조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자 감사로 전환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과 대한축구협회의 재정 및 운영 상태들을 집중적으로 점검 중이다.

유 장관은 함께 진행되고 있는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에 대해서도 “잘 진행되고 있다. 문제가 된 선수와 지도자의 관계나 국가대표 선발 문제, 예산 집행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9월 안에 마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책 위반에 대해 살피고 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정부 사업으로 서틀록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30%에 달하는 물량을 이면 계약을 통해 추가로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배드민턴협회가 30%의 물량을 더 받은 점과 이를 장부에 남기지 않고 임의로 분배한 것에 대해 보조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기념품 제작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도 검토 중이다.

또 유 장관은 “체육과 체육인을 생각하는 정책이면 되는데 낡은 관행과 오래된 습관이 남아 있다. 체육이 정치 조직화됐다는 생각”이라며 “그동안 여러 상황이 발생했고 의견도 났는데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당분간 큰 국제 경기가 없기에 체육 정책의 전반적 개혁을 잘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규빈 기자

광주FC 정호연 ‘홍명보호’ 승선

월드컵 예선 소집 명단 발표
‘스완지 이적’ 임지성도 발탁

‘광주FC의 중심’ 정호연(사진)이 홍명보 감독 체제로 새 출발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발탁됐다. 지난 3월 황선홍 임시 감독 체제에서 A대표팀에 최초 발탁된데 이어 홍명보 감독에게도 부름을 받으면서 한국 축구의 주축 중원 자원으로 발돋움이 기대된다.

홍명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26일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5일 팔레스타인, 10일 오만을 상대로 치르는 2026 FIFA(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1·2차전에 나설 소집 명단을 발표했다.

광주FC에서는 미드필더 정호연이 유일하게 발탁되며 지난 3월 2차 예선 태국과 2연전에 이어 다시 한번 A대표팀 유니폼을 입었다. 지난해 광주의 돌풍을 이끌며 K리그1 영플레이어를 수상했던 정호연은 올해도 맹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정호연은 지난해 K리그1 34경기에서 2득점 4도움을 올렸고, 올해는 K리그1이 28라운드를 마친 현재 경고 누적 결장 한차례를 제외하고 27경기에 나서 다섯 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이번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광주FC에서 EFL 챔피언십(잉글랜드 2부리그) 스완지 시티 AFC로 이적한 미드필더 임지성도 홍명보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임지성은 지난 2022년 1월 튀르키예 전지훈련 소집 명단에 이름을 올려 아이슬란드, 몰도바와 친선경기를 소화한 뒤 2년 8개월 만이다.

‘홍명보호 시즌 2 1기’가 될 이번 대표팀에는 주장 손흥민(토트넘 홋스퍼 FC)과 황인범(FK 츠르베나 즈베즈다), 이재성(1. FSV 마인츠 05), 황희찬(울버햄프턴 원더러스 FC),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FC), 김민재(FC 바이에른 뮌헨) 등 주축 자원들이 변함없이 이름을 올렸다.

또 올해 K리그1에서 고교생 돌풍을 일으키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진출을 확정 지은 양민혁(강원FC)을 비롯해 이한범(FC 미트윌란)과 황문기(강원FC), 최우진(인천유나이티드)이 A대표팀에 최초 발탁되는 영광을 안았다.

홍명보호의 두 번째 출항을 시작하는 이번 대표팀은 다음 달 2일 소집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훈련을 진행한다.

이어 다음 달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을 상대한 뒤 10일에는 오만으로 떠나 원정 경기를 소화한다.

한규빈 기자

